

# 다문화 가정 관련 국내 간호 연구 동향

김민아<sup>1</sup>, 최소은<sup>2\*</sup>

<sup>1</sup>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Min-A Kim<sup>1</sup>, So-Eun Choi<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다문화 가정 관련 간호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간호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 남편, 자녀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간호연구를 분석 하였다. 다문화 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으며, 학술지 게재가 많았으나,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율은 낮았다.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시작 되었으며 실험연구의 대부분이 유사 실험연구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 이 중심이었고 자녀, 남편, 시어머니, 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연구도구가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미흡하였으며, 통역사의 도움 없이 진행된 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연구의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번역된 연구도구의 개발과 통역사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간호연구, 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 COSI model was used to guide the search process between the years 2008 and 2016, using the keywords ‘cultural diversity’, ‘women’, ‘spouses’, ‘family’, ‘children’ and ‘nursing’. Of papers 137, 19 were doctoral dissertations, 10 were master’s theses and 108 were from academic journals. Nursing research on internal married immigrant wome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11. True experimental studies began in 2014 and most of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quasi-experimental stud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search on children, husband, mother-in-law and couple was very poor.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validity/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instruments were noted. The overal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more well-designed experiment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tudy to husband and mother-in-law living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Considering the ethnic background of the subj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earch tool with well-translated validity and reliability.

**Key Words** : Multiculturalism, Family, Marriage Immigrant Women, Nursing, Research, Trend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사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결혼 이민자[1,2], 노동자 이주[3], 유학이주[4] 등 다양한 성격의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부터 내국인 혼인을 하락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16. (No. 2016-0146)

\*Corresponding Author : So-Eun Choi(seami@mokpo.ac.kr)

Received March 4,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March 31,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면서 다문화 가정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결혼이주 여성과 그들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에 이를 전망이다[5,6].

이처럼 국제결혼의 양적 팽창은 국제결혼 당사자들을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국제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7].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차이[8], 적응[9], 가족갈등[10], 결혼만족[11]과 관련된 연구들이 초기에 수행되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남편, 시집식구와의 소통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차원과 간호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새로운 여성 건강·가족 건강 간호 대상자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12].

간호학의 지식체 생성 및 축적을 위해 특정분야나 연구주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행된 연구를 분석·평가하여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리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결혼 이주여성 대상 연구동향을 살펴 본 간호연구는 건강관련 연구[7,14], 중재연구[15], 모성적응 관련 양적 논문[16], 문화적응 스트레스[17]가 있었으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교적응 예측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18] 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대상자를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특정한 분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간호연구 전반에 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연구를 연구출처, 연구설계, 연구대상자를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간호학적 관점에서 연구의 방향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연구 중에서 석, 박사 학위논문과 간호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수입 장소 및 윤리적인 측면을 파악한다.

둘째, 학술지 논문에서 연구자의 수와 주저자의 직종 및 연구비 지원유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통역 유무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다문화 가정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논문 선정 및 자료 수집

#### 1)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1) 다문화 가정의 여성, 자녀,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2)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연구 3) 국내에서 발행된 간호연구이였으며, 제외기준은 1) 학술대회 자료집 2)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이었다.

####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목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MNUIRB-20160901-SB-007-01)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충분히 훈련된 연구자 2명이 2017년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문헌검색을 시행하였다. 첫째, 다문화 가정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여성'과 '가정', '가족', '여성', '남편', '아동', '시어머니'와 '간호'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인 2008년부터 최근인 2016년까지 연구를 검색하였다. 셋째, 문헌검색 과정은 COSI model에 따라 검색하였다. COSI model은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CO는 core search, S는 standard search, I는 Ideal search의 약어이다[19]. Core 검색으로 RISS, DBpia, KISS에서 검색하였으며, Standard 검색은 주제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DB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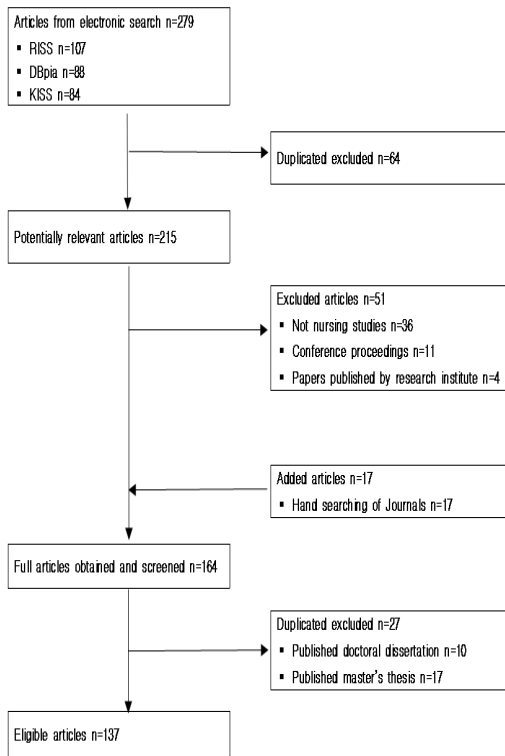


Fig. 1. Flow of included articles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Ideal 검색은 회색문헌이나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검색하는 것이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 되었을 경우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넷째, 서지관리 프로그램 EndNote를 이용하여 문헌의 서지정보를 관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Riss에서 107편, DBpia에서 88편, KISS에서 84편의 논문 총 279편을 검색하였다. 이 중 64편은 중복되어 제외하고 215편의 논문은 초록을 확인하여 간호학 논문이 아닌 36편, 학술대회 논문집 11편,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 4편을 제외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가정간호학회지 검색을 통해 17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Fig. 1과 같이 총 164편의 논문에 대해 전문을 검토하여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27편을 제외하여 총 13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연구동향 분석틀

연구동향 분석틀은 선행연구[20]를 토대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여부, 통역 유무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분석틀에는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

료수집방법과 자료수집 장소, 윤리적 측면, 연구자 수, 연구자 직종, 연구비 지원, 연구대상,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여부, 통역 유무로 구성되었다.

논문유형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자 수, 제 1저자와 교신저자의 직종, 연구비 지원 유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 자녀, 남편, 시어머니와 부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3 자료 분석 방법

분석항목인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수집 장소, 윤리적 측면, 연구자 수, 연구자 직종, 연구비 지원, 연구대상, 출신국가, 연구도구의 번역, 통역 유무 따라 연구자 2명이 각각 엑셀에 코딩하여 결과를 비교 확인하였다. 코딩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37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별 변화를 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논문의 특성

시기별 논문의 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은 30편, 2011년부터 2013년은 58편, 2014년부터 2016년은 49편의 간호연구가 시행되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논문은 108편(78.8%), 박사논문 19편(13.9%)과 석사논문 10편(7.3%)이었는데, 학술지 논문 108편 중 박사학위논문 10편, 석사학위논문 17편이 포함되었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111편(82.8%), 질적 연구는 22편(16.4%)이었다.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연구는 20편, 비 실험연구는 91편이었다. 비실험 연구 중 조사연구가 6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적 연구 8편, 구조모형 연구 순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사 실험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순수 실험연구 4편이었다. 시기별로는 실험 연구는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순수 실험연구가 처음 시행되었다. 비 실험연구 중 조사연구는 2014년부터 감소하였고, 이 기간에 문헌고찰 연구와 이차분석연구가 증가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가 92편(74.2%), 면담 23편(18.6%), 온라인 조사 6편(4.8%)이었으며, 2014년 이후 온라인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증가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사회복지기관이 66편(52.8%), 공공보건기관이 23편(18.4%), 병원이 13편(10.4%)이었으며, 학교와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N=137)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b>Manuscript type</b>				
Doctoral dissertation	3(10.0)	6(10.3)	10(20.4)	19(13.9)
Master's thesis	2(6.7)	8(13.8)		10(7.3)
Academic journal	25(83.3)	44(75.9)	39(79.6)	108(78.8)
	30	58	49	137
<b>Research Design</b>				
<b>Quantitative Research</b>				
<b>Experimental design</b>				
True experimental design			4(8.3)	4(3.0)
Quasi-experimental design	5(17.2)	5(8.6)	6(12.5)	16(11.9)
<b>Non-experimental design</b>				
Survey	15(51.7)	32(55.2)	22(45.8)	69(51.1)
Methodological research	2(6.9)	4(6.9)	2(4.2)	8(5.9)
Structure	2(6.9)	2(3.4)	2(4.2)	6(4.4)
Literature review	1(3.4)	1(1.7)	2(4.2)	4(3.0)
Second analysis		1(1.7)	3(6.3)	4(3.0)
Total				111
<b>Qualitative Research</b>				
Grounded theory		1(1.7)	1(2.1)	2(1.5)
Phenomenological research	1(3.4)	6(10.3)	3(6.3)	10(7.4)
Content analysis	2(6.9)	1(1.7)	1(2.1)	4(3.0)
Ethnography research		2(3.4)	1(2.1)	3(2.2)
Other		2(3.4)	1(2.1)	3(2.2)
Total				22
Triangulation	1(3.5)	1(1.7)		2(1.5)
<b>Data collection Method</b>				
Questionnaire	23(85.2)	38(71.7)	31(70.5)	92(74.2)
Interview	4(14.8)	12(22.6)	7(15.9)	23(18.6)
Online survey		1(1.9)	5(11.4)	6(4.8)
Medical records		1(1.9)		1(0.8)
Multicultural family survey		1(1.9)	1(2.3)	2(1.6)
<b>Data collection place</b>				
Social welfare institution	15(55.6)	29(55.8)	22(47.8)	66(52.8)
Public health agency	5(18.5)	11(21.2)	7(15.2)	23(18.4)
Hospital	4(14.8)	5(9.6)	4(8.7)	13(10.4)
School	1(3.7)	4(7.7)	2(4.4)	7(5.6)
Participants' house	2(7.4)	1(1.9)	4(8.7)	7(5.6)
Secondary review		2(3.8)	7(15.2)	9(7.2)
<b>Ethical consideration</b>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5(16.7)	22(37.9)	36(73.5)	63(46.0)
Not reported	25(83.3)	36(62.1)	13(26.5)	74(54.0)

\*Multiple choice

Table 1과 같이 기관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받은 논문은 63편(46.0%), IRB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74편(54.0%)이었으며, 2014년 이후로는 49편의 논문 중 36편은 IRB 심의를 받았다.

### 3.2 학술지 논문의 특성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의 수는 1명이 21편(19.4%), 2명이 46편(42.6%)으로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저자 직종은 교수 97편(89.8%), 임상간호사 11편(10.2%)이었으며 교신저자 직종은 교수가 103편(95.4%)이었다. 2014년 이후 논문에서는 1저자 중 임상간호사의 비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학술지 논문 중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44편(40.7%)이었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은 64편(59.3%)이었다(Table 2).

### 3.3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로 결혼이주 여성은 109편(79.6%)이며, 자녀 14편(10.2%), 시어머니와 부부는 각각 5편, 남편 4편이었다. 2011년 부터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증가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ie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N=108)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b>Number of researchers</b>				
1	10(40.0)	7(15.9)	4(10.3)	21(19.4)
2	5(20.0)	19(43.2)	22(56.4)	46(42.6)
3~5	8(32.0)	17(38.6)	12(30.8)	37(34.3)
≥6	2(8.0)	1(2.3)	1(2.5)	4(3.7)
<b>Occupation of first author</b>				
Professor	22(88.0)	42(95.4)	33(84.6)	97(89.8)
Nurse	3(12.0)	2(4.6)	6(15.4)	11(10.2)
<b>Occupation of corresponding author</b>				
Professor	24(96.0)	41(93.2)	38(97.4)	103(95.4)
Nurse	1(4.0)	3(6.8)	1(2.6)	5(4.6)
<b>Research fund supporting</b>				
Inside grant	6(24.0)	9(20.4)	9(23.1)	24(22.2)
Outside grant	5(20.0)	11(25.0)	4(10.3)	20(18.5)
No	14(56.0)	24(54.6)	26(66.6)	64(59.3)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8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65편, 일본이 30편이었다.

연구도구 번역은 베트남어가 6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어 44편, 영어 36편이었으며, 2014년 이후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및 몽골어가 증가하였다.

Table 3과 같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논문은 72편 (52.6%)이었으며, 그중 전문통역사는 55편(40.2%), 다른 이주여성의 도움 16편(11.7%)이었다.

Table 3.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N=137)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b>Participants</b>				
Women	25	49	35	109(79.6)
Children	1	6	7	14(10.2)
Husband	1	1	2	4(2.9)
Mother-in-law	1		4	5(3.6)
Couple	2	2	1	5(3.6)
<b>Country of origin<sup>a</sup></b>				
Vietnam	23	41	22	86(28.8)
Philippines	18	32	15	65(21.7)
China	17	33	15	65(21.7)
Japan	11	13	6	30(10.0)
Cambodia	7	5	7	19(6.4)
Thailand	7	5	3	15(5.0)
Mongolia	3	3	4	10(3.3)
Uzbekistan	4	2	1	7(2.3)
Russia		1	1	2(0.7)
<b>Translation language<sup>b</sup></b>				
Vietnamese	14	23	23	60(35.1)
Chinese	8	19	17	44(25.7)
English	10	14	12	36(21.1)
Cambodian	1	4	6	11(6.4)
Filipino	2	2	5	9(5.3)
Japanese	1	2	4	7(4.1)
Mongolian		1	3	4(2.3)
<b>Interpreting help</b>				
<b>Yes</b>				
Translator	10	22	23	55(40.2)
Other immigrant women	6	8	2	16(11.7)
Husband	1			1(0.7)
<b>No</b>				
	13	28	24	65(47.4)
<sup>c</sup> Multiple choice				

####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9년간 국내에서 게재된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논문유형은 학술지는 78.8%, 박사학위논문 13.9%, 석사학위논문은 7.3% 순 이었다. Kim 등[15]이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연구 분석 연구에서 학술지 42.2%, 석사 46.7%, 박사 11.1%와 Song 등[16]이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 고찰에서 학술지 55.6%, 석사학위논문 27.8%, 박사학위논문 16.7%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으로 분석하였고, 2014년 이전자료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 시 학술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2014년 이후 박사논문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기에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을 포함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나,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은 박사 논문 10편과 석사 논문 17편이었다. 학위논문은 국외 연구자가 문헌검색을 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없는 회색 문헌이므로[21],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82.8%로 대부분이었으며, 질적연구는 16.4%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7]에서 조사연구 80.0%, 질적연구 16.7%와 유사하다.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는 18.0%로 Song 등[16] 연구의 16.7%와 비슷하다. 하지만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4편만 시행되었고 유사 실험 연구가 대부분인 것은 간호학의 특성상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지만[20],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순수 실험연구 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74.2%로 가장 많았으며, 면담과 온라인 조사 등이 있었으며 일부 논문에서는 설문지와 함께 면담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관련 선행연구[7]와 외국인 이주자 건강관련 연구동향 연구[14]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설문지가 출신국가의 모국어로 번역되었는지 면담시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하였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면담을 사용한 연구결과 보고시에 설문지와 면담에 사용된 언어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장소는 사회복지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71.2%이었으며, 이는 Song 등[16] 연구의 지역 사회센터 70%와 유사하다. 자료수집이 가정이나 병원보

다는 지역사회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료수집의 용이성, 통역의 필요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Ahn 등[7] 연구에 의하며,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영역의 연구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체적 건강은 6.7%에 불과하다는 결과로 비추어 임상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건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함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모성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자녀 양육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 요구가 높은 인구집단이다. 또한 2000년 초부터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시점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관련 간호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2].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 IRB를 받지 않은 경우가 54.0%이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73.5% 연구에서 IRB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워크숍 등이 시행되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20], 많은 학회지에서 논문 투고시 IRB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상 결혼이주여성은 취약계층 집단으로 분류되므로 연구자들은 대상자들의 문화적 고려사항의 이해 및 윤리적 처치제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23].

학술지에 논문에서 제 1저자의 직종이 교수인 경우 89.8%, 임상간호사 10.2%이었는 데, Choe 등의 연구[20] 교수 77.6%, 임상간호사 17.7%, 대학원생 1.6%에 비해 교수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회지에 교수들의 연구가 주로 게재되며, 간호사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교수가 제 1저자나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0].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1저자가 임상간호사인 논문이 증가하였는데, 임상실무에서 직접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간호중재의 바탕을 이루고자 하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는 결혼이주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녀, 남편, 시어머니, 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을 보면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12].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여성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24]. 이는 부부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갈등구조를 유발할 수 있고, 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 남편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 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28.8%)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과 필리핀(각각 21.7%)이 많았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연구 고찰[15]에서는 베트남 40%, 중국 23.8%, 필리핀 12.2% 순이었으며 2006~2011 연구를 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했을 때, 시기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의 분포가 다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 연구[16]에서 일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2.2%, 다양한 국적의 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는 77.8%이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신념이 다를 수 있는 연구 개념에 대해서는 외국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국 출신의 대상자를 함께 묶어 연구하기 보다는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고려하여 단일 출신국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번역된 연구도구는 베트남어가 가장 많았고 중국어와 영어 순이었는데, 연구대상의 출신국가에 따라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일부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생략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도구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후 연구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7]. 또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논문은 52.6% 뿐이었으며, 11.7%는 다른 이주여성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연구 중 일부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역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Chung[25]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은 '대화를 조금할 수 있음'이 36.1%, '조금 읽을 수 있음'이 26.9%으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타 문화권에서 살거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은 연구의 타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별 타당도가 높은 연구도구 개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통역 등을 준비해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실험연구와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번역된 연구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많았으나,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률은 낮았다.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시작 되었으며 실험연구의 대부분이 유사실험 연구이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2014년 이후 대부분의 논문이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종은 교수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었으며 자녀, 남편, 시어머니, 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연구도구가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미흡하였으며, 통역사의 도움 없이 진행된 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윤리적인 측면, 연구자의 직종과 연구대상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연구도구 번역 여부와 통역사의 도움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순수실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중재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을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 남편과 시어머니 및 부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민족적 배경을 고려하여 잘 번역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연구도구 개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통역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Hung, W. Yang & P. Yen. (2010). More than Lost in Transl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Workers' Experiences Working with Vietnamese Wives in Taiwan. *International Social Work*, 53(3), 327-338.
- [2] H. Kim. (2009). Contested Governance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Societies: Labor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40(2), 273-300.
- [3] L. Huang. (2006). A World without Strangers?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28(4), 447-473.
- [4] A. Villegas & T. Lucas. (2002). Prepar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Rethinking the Curriculu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1), 20-32.
- [5] H. S. Kim.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4), 248-256.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248>
- [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2). *The statistics of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
- [7] O. H. Ahn, M. S. Jeon, Y. Y. Hwang, K. A. Kim, M & S. Youn. (2010).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5(2), 134-150.
- [8] K. D. Park. (2008). A study on the making and confli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entering on cases in gwangju and jeonnam, Korea.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18, 140-174.
- [9] C. S. Koo. (2007).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19-360.
- [10] J. H. Kim & O. I. Park. (2008).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8(1), 127-160.
- [11] S. H. Kim. (2009). *An analysis on the life actual conditions and factors determining marital happin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12] H. S. Kim.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4), 248-256.
- [13] S. H. Choi, Y. H. Nam, E. J. Ryu, M. W. Back, D. H. Suh, S. R. Suh, et al. (1998).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0-199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3), 786-800.
- [14] J. W. Choi, H. K. Lee & D. H. Chae. (2011). Trends in

- Health-related Research on Foreign Migrants Living in Korea: Review of Published Studies during the Past 10 Years (2000-2009).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3), 113-128.
- [15] T. I. Kim, J. Y. Kim, S. M. Choi & G. H. Jung. (2013). 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4(2), 172-184.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2.172>
- [16] J. E. Song, E. H. Roh & S. M. Park. (2015).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mong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1), 55-70.  
<http://dx.doi.org/10.4069/kjwhn.2015.21.1.55>
- [17] K. S. Lee & Y. R. Yeun.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3), 697-709.
- [18] D. H. Kim. (2016).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9(3), 156-166, 2288-9957  
<http://dx.doi.org/10.15434/kssh.2016.29.3.156>
- [19] S. Bidwell & M. F. Jensen. *Using a search protocol to identify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SI model. Etext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Information Resources*.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Health Care Technology. <http://www.nlm.nih.gov/archive/20060905/nichsr/eha/chapter3.html>. Accessed December 8, 2014.
- [20] M. A. Choe, N. C. Kim, K. M. Kim, S. J. Kim, K. S. Park & Y. S. Byeon. et al. (2014).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4(5), 484-94.
- [21] S. D. Kim, S. E. Choi & S. H. Choi. (2015). Department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ancer in Korea. *Asian Oncology of Nursing*, 15(3), 123-131.  
<http://dx.doi.org/10.5388/aon.2015.15.3.123>
- [22] J. E. Lee & H. W. Chung. (2016).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2), 95-102.
- [23] D. Birman. (2005). Ethical issues in research with immigrants and refugees. In J.E. Trimble & C.B. Fisher (Eds.), *Handbook of ethical research with ethnocultural populations and communities*. (pp.155-176). New York: Sage.
- [24] Statistics Korea.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1*, 2012
- [25] H. W. Chung. *Marriage-based immigrant cohort stud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김민아(Kim, Min A)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박사)
- 1997년 3월 ~ 2014년 2월 : 안동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기초간호학, 간호연구
- E-Mail : makim0624@mcu.ac.kr

최소은(Choi, So Eun)

[정회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기초간호학, 중앙간호, 감염관리
- E-Mail : seami@mokpo.ac.kr